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46호
2024. 2. 29.

- 2023년 지역별 건설수주, “지방과 수도권 모두 감소”
-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큰 저수지,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23년 지역별 건설수주, “지방과 수도권 모두 감소”

- 광주·울산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 대구, 전남, 경남, 충청권 침체 심각 -

2023년 지역별 건설수주 분석¹⁾

●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에 의하면 2023년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9.1% 감소하였는데,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지방과 수도권 모두 감소함(<그림 1, 2> 참조).

수도권 건설수주 전년 대비 21.6% 감소, 지방도 전년 대비 16.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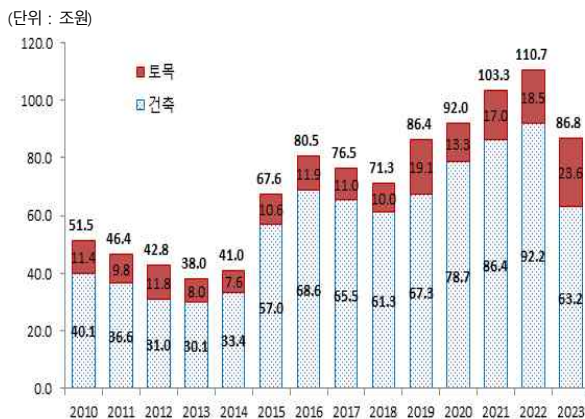
● 수도권의 경우 토목은 양호했지만, 건축수주가 부진해 전년 대비 21.6% 감소한 86.8조원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마감함(<그림 1> 참조).

- 토목수주는 인천(-17.8%)에서 부진하였지만, 서울(+60.1%)과 경기(+32.6%)에서 양호해 전년 대비 27.5% 증가, 자료가 확인되는 2000년 이후 최대 실적인 23.6조원을 기록함.
- 건축수주는 서울(-24.9%), 인천(-20.9%), 경기(-35.6%)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대비 31.4% 감소, 5년래 최저치인 63.2조원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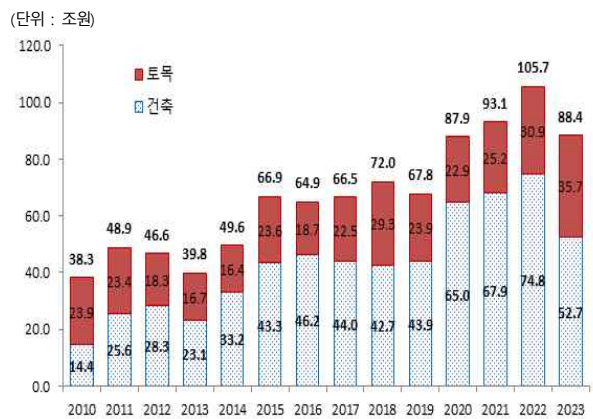
● 지방의 경우도 토목은 양호했지만,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16.4% 감소한 88.4조원에 그침(<그림 2> 참조).

- 토목수주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한 35.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반면 건축수주는 전년 대비 29.6% 감소, 4년래 최저치인 52.7조원으로 분석됨.

<그림 1> 수도권 건설수주 추이



<그림 2> 지방 건설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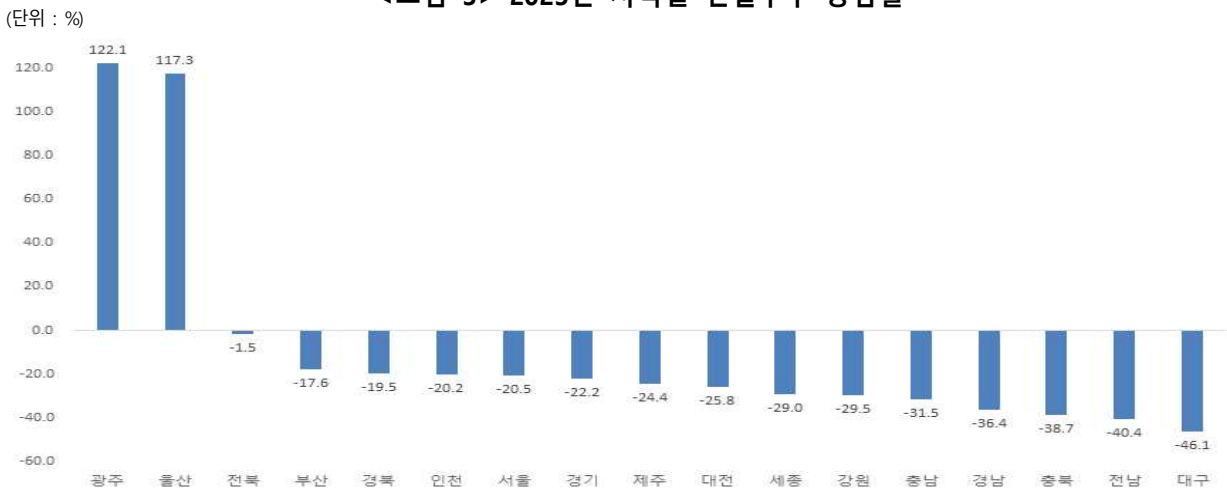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1)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함. 잠정치로 향후 수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로 광주와 울산에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부진

- 2023년 지역별 건설수주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광주와 울산은 수주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함(<그림 3> 참조).
 - 광주의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22.1% 증가함. 건축(+115.0%)과 토목(+185.4%)수주 모두 양호해 역대 최대 실적인 6.6조원을 기록하였는데, 정비사업 및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수주 등의 영향으로 건축과 토목수주 모두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 울산의 건설수주 역시 전년 대비 117.3% 증가한 12.9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함. 건축(-19.2%)이 부진하였지만, 초대형 석유화학 플랜트인 사힌 프로젝트(9.2조원) 수주의 영향으로 토목(+396.2%)수주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로 분석됨.
- 지역별로 대구와 전남, 그리고 경남과 충청권에서 수주 침체가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됨(<그림 3> 참조).
 - 대구의 경우 전년 대비 46.1% 감소, 11년래 최저치인 2.6조원에 그침. 토목(-8.4%)도 부진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축수주(-49.5%) 축소가 특히 심각했음.
 - 전남의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40.4% 감소, 7년래 최저치인 5.4조원으로 확인됨. 건축(+5.2%)은 일부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토목수주(-52.6%) 침체가 심각했음.
 - 경남의 경우 토목(-19.45)과 건축(-44.5%) 모두 부진해 전년 대비 36.4% 감소함.
 - 한편, 충청권에 속한 세종(-29.0%), 충남(-31.5%), 충북(-38.7%)의 경우도 건축과 토목이 함께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0% 내외로 수주가 위축됨.

<그림 3> 2023년 지역별 건설수주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박철한(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큰 저수지, 선제적 대응 필요

- 안전 및 성능을 알 수 없는 저수지 8,100곳,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 -

저수지 C(보통) 등급 이하 544개소, 성능평가 등급을 알 수 없는 시설물 8,100개소

- 최근 시행한 인프라 총조사²⁾ 결과, 저수지는 절반이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는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D, E 등급과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49.8%에 달함.
 - 전체 저수지 1만 7,375곳 중 A등급 779곳, B등급 3,183곳, C등급 4,720곳, D등급 509곳, E등급 35곳이며, 안전등급을 알 수 없는 곳은 8,100곳에 달하고 있음.³⁾

<표 1> 인프라 총조사(저수지) 안전등급 결과

(단위 : 개소, km²)

지역	A		B		C		D		E		미실시		실시완료		합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부산	3	9.8	12	4.3	15	7.2	1	0.1	-	-	66	26.8	-	-	97	48.2
대구	10	10.3	53	146.9	66	293.0	1	0.3	-	-	441	268.9	-	-	571	719.4
인천	-	-	6	37.5	14	99.8	-	-	-	-	33	36.2	-	-	53	173.4
광주	8	1.7	51	41.6	34	20.5	5	1.1	-	-	38	21.3	-	-	136	86.3
대전	-	-	5	17.5	4	21.9	1	0.7	-	-	7	10.1	-	-	17	50.1
울산	4	12.5	25	41.7	90	67.8	-	-	-	-	228	86.7	-	-	347	208.8
세종	16	9.0	7	3.4	8	19.5	1	0.2	-	-	5	5.1	-	-	37	37.3
경기	17	82.4	94	329.3	131	513.9	11	10.5	-	-	88	51.6	-	-	341	987.7
강원	32	93.5	119	488.9	83	463.3	5	3.5	-	-	76	74.8	-	-	315	1,123.9
충북	61	47.0	247	651.3	405	631.8	35	39.7	-	-	21	12.9	-	-	769	1,382.8
충남	26	423.5	153	692.8	343	800.1	31	31.9	2	0.5	344	244.0	8	7.4	907	2,200.2
전북	59	87.0	491	1,678.2	909	1,134.2	91	29.5	1	0.1	690	270.0	1	1.0	2,242	3,200.0
전남	183	274.0	603	1,356.1	737	1,299.2	128	69.1	1	0.1	1,541	803.6	27	28.1	3,220	3,830.3
경북	200	480.9	830	1,873.3	981	1,463.1	106	122.5	29	11.6	2,964	1,281.9	13	10.6	5,123	5,243.9
경남	155	225.3	486	620.2	896	1,202.5	93	56.7	2	0.1	1,558	724.1	-	-	3,190	2,829.0
제주	5	19.1	1	99.4	4	26.1	-	-	-	-	-	-	-	-	10	144.5
총계	779	1,776.0	3,183	8,082.5	4,720	8,063.8	509	365.9	35	12.4	8,100	3,918.0	49	47.1	17,375	22,265.7

주 : 2022년 12월 기준임.

자료 : 국토교통부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총조사.

2)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15종 478,299개 시설물에 대해서 인프라 총조사를 실시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지역별로는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저수지는 농경지 등이 많은 전남, 경북 지역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음.
 - 광역시는 D, E등급 저수지가 10개소 이하인 것에 반해 도 지역은 10개소 이상 존재함. 특히, 전남, 경북은 100개소가 넘으며, 안전등급을 알 수 없는 곳도 1,500곳이 넘음.

■ 안전등급 C(보통) 등급 미만 및 성능평가 등급을 알 수 없는 시설물 대부분 노후화

- 안전등급 C등급 미만 및 미실시 저수지의 대부분이 건설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나타남.
 - 안전등급 D등급 509곳 중 505곳, E등급 35곳 전체, 미실시 8,100곳 중 7,988곳이 30년 이상되어 노후화가 심각함. 특히, 전남·경북·경남은 안전등급도 낮고 노후화된 저수지가 1,500곳이 넘음.

<표 2> 안전등급 D, E 등급 및 미실시 저수지의 노후화

(단위 : 개소, km²)

지역	D			E			미실시		
	개소	면적	건설 후 30년 이상	개소	면적	건설 후 30년 이상	개소	면적	건설 후 30년 이상
부산	1	0.1	1	-	-	-	66	26.8	64
대구	1	0.3	1	-	-	-	441	268.9	441
인천	-	-	-	-	-	-	33	36.2	16
광주	5	1.1	5	-	-	-	38	21.3	38
대전	1	0.7	1	-	-	-	7	10.1	7
울산	-	-	-	-	-	-	228	86.7	228
세종	1	0.2	1	-	-	-	5	5.1	5
경기	11	10.5	11	-	-	-	88	51.6	87
강원	5	3.5	3	-	-	-	76	74.8	76
충북	35	39.7	35	-	-	-	21	12.9	18
충남	31	31.9	29	2	0.5	2	344	244.0	332
전북	91	29.5	91	1	0.1	1	690	270.0	679
전남	128	69.1	128	1	0.1	1	1,541	803.6	1,506
경북	106	122.5	106	29	11.6	29	2,964	1,281.9	2,948
경남	93	56.7	93	2	0.1	2	1,558	724.1	1,543
제주	-	-	-	-	-	-	-	-	-
총계	509	365.9	505	35	12.4	35	8,100	3,918.0	7,988

주 : 건설 후 30년 이상은 2023년 12월 기준이며, 개소임.
 자료 : 국토교통부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총조사.

■ 한국농어촌공사⁴⁾ 관리 저수지, D등급 및 미실시 81개소

-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저수지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D등급 및 미실시 저수지가 81개소에 달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대부분이 C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나타내고 있으나, D등급 저수지 67개소, 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등급을 알 수 없는 저수지는 14개소에 이르고 있음.

4) 저수지 관리자는 「저수지법」 제2조 2호에 따라 저수지·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있으며,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일한 중앙부처 관리 기관임.

- D등급 및 미실시 모두 건설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로 빠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함.

<표 3>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현황

(단위 : 개소, km)

	A			B			C			D			미실시			실시완료			합계		
	개소	면적	30년 이상	개소	면적	30년 이상	개소	면적	30년 이상	개소	면적	30년 이상	개소	면적	30년 이상	개소	면적	30년 이상	개소	면적	30년 이상
한국 농어촌공사	342	1,463.1	282	1124	6,963.1	967	1893	6,590.0	1712	67	91.0	67	14	19.1	12	2	6.2	1	3442	15,132.5	3041
부산	2	9.4	2	1	2.3	1	2	3.2	2										5	14.9	5
대구	2	2.4	2	13	127.2	11	27	263.2	26										42	392.8	39
인천				4	33.9	3	13	99.7	9										17	133.6	12
광주	2	0.5	2	29	30.5	29	18	10.9	17	3	0.7	3							52	42.5	51
대전				1	14.4	0	2	20.8	2										3	35.1	2
울산	3	12.4	2	19	40.1	15	63	55.8	59				1	0	1				86	108.3	77
세종							1	16.2	1										1	16.2	1
경기	7	74.9	7	34	278.8	32	53	434.2	52	1	0.9	1	1	0	1				96	788.8	93
강원	8	76.4	4	24	424.7	19	46	437.6	36	1	0.4	1	1	13.3	1				80	952.4	61
충북	12	18.7	8	63	565.1	51	105	467.9	96	6	8.5	6	1	2.2	0				187	1,062.4	161
충남	15	409.8	12	66	631.6	55	146	675.9	131				1	0	1				228	1,717.3	199
전북	29	74.7	23	156	1,504.4	141	211	889.1	186	9	5.5	9	1	0	1				406	2,473.8	360
전남	132	245.7	125	326	1,197.3	295	524	1,162.4	483	22	27.7	22				1	4.2	1	1005	2,637.3	926
경북	80	370.7	54	209	1,528.0	169	345	1,091.7	318	17	37.5	17	5	3.2	4	1	2.0	0	657	3,033.1	562
경남	45	148.3	41	178	485.4	146	334	935.5	291	8	9.9	8	3	0.4	3				568	1,579.4	489
제주	5	19.1	0	1	99.4	0	3	26.0	3										9	144.5	3

주 : 건설 후 30년 이상은 2023년 12월 기준이며, 개소임.
 자료 : 국토교통부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인프라총조사.

■ 극단적 강우 발생 확률 증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시급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⁵⁾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져 과거보다 극단적인 강도의 자연재난이 더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국내 강수량 및 장마 강수량 역시 증가세를 보임.
 - 국내 연평균(1973~2023) 강수량은 연간 1.6mm, 집중호우 기간의 강수량은 1.5mm씩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오어지 저수지가 범람함. 그로 인해 포항 냉천의 물이 넘쳐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저수지의 범람 및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큰 저수지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함.
 - 현재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안전점검 미실시 저수지에 대한 검사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관리역량이 우수하면서 예산확보가 수월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중앙부처 관리 저수지부터 보완하고 노후화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엄근용(연구위원 · kyeom@cerik.re.kr)

5) 1988년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과 세계기상기구(WMO)가 창설하였으며 IPCC에는 195개 회원국이 있음. IPCC의 주요 활동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함.